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민생이
경제다

내일을 여는 길, 당신 곁에

현정길

6

21대국회의원선거 남구갑 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남구갑 선거구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 별	생년월일(세)	직 업	학 력	경 력
6	정의당	현정길	남	1963.01.30 (57세)	정당인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전) 정의당 부산남구청장 선거 후보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 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428,961	83,961	335,000	해당없음	10,000	보충역 및 소집면제(수형)	장남 : 육군병장 (만기전역) 차남 : 육군이병 복무완료 (소집해제)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 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6월 (1983.07.13.)
		체납액 누액	현 체납액	
계	33,026	0	0	
후 보 자	10,210	0	0	
배 우 자	22,815	0	0	
직계존속	해당없음	0	0	
직계비속	1	0	0	

4.소명서

현정길 후보는 1983년 한양대학교 재학시 전두환 독재 정권에 반대하여 교내 민주화시위를 주도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받았고, 이후 사면복권을 거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대상자가 되었음.

이제 정치가 답할 때입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시민들의 연대로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제 몫을 내놓으면서까지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70대 노인이 현금 50만원과 마스크 80장을 부산 부평파출소에 기부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이순업 할머니는 마스크 20개를, 청소년 남매는 저금통에 있던 40여만원을,

광주의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대구 의료인에게 장어도사락 1억원어치를.

위대한 국민들은 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공적 마스크

정의당

당신이 먼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직접 지급, 더이상 미루면 민생도 경제도 무너집니다.

“코로나19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탁상공론하고 있는 동안 쓰러지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국민들의 지갑에
생계비를 직접 꽂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바른 정치여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정치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정치는 누가 더 나쁜지 가리는 싸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끝장내고 미래를 향해 경쟁하는 국회라야 합니다.

가짜 정당, 신종 '위성정당'이 정치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례 위성정당들만 난무하는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만 남았습니다.



민생 지킴이 “현정길”이 있습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20대엔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학생운동,
30대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동운동,
40대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 그리고 협동의 경제를 위한 노동자 생활협동조합운동,
50대엔 부산 최초로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김석준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설계한 혁신교육 정책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권과 갑질 없는 나라를 위한 여정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꾸고 실천했습니다.
선택이 막힐 때는 힘들고 어려운 쪽을 선택하러던 노회찬의원의 말처럼
현정길은 애써서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현정길은 촛불이 명령한 미완의 과제, ‘특권과 갑질 없는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현정길의 비전 정의로운 대전환

**생명과 안전은
국민 기본권입니다.**

코로나19, 현정길의 대안

-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 모두가 대통령처럼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 감염병과 최일선에서 싸울 '공공의료 확대 및 보건의료인력' 확보

세군무기 실험실, 현정길의 대안

- 주한미군 세군무기실험실 철거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위험물 반입시 사전 허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전략, 그린뉴딜

기후위기를 막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0% 달성
-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판매 중지
- 미세먼지 없는 항만으로 그린해양수도 부산
- 공공기관 차량과 대중교통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 마을 에너지협동조합으로 에너지 자립
- 그린 리모델링 도시재생

연대와 공존으로 차별 없는 사회

차별과 혐오를 연대와 공존으로,
부모 찬스를 사회 찬스로

- 최저임금 1만원, 온 국민 월급 300만원 시대
-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 상한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평등 기본법 제정
- 임대료 억제, 주거비 보조, 공공주택 보급의 3박자 주거대책

특권은 내려놓고 책임은 무겁게 지는 정치개혁

넓은 정치, 대결 정치는 이제 그만!
국민을 닮은 국회,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세비 상한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비례 위성정당 금지와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현정길의 남구형 그린뉴딜

깨끗하고 풍요로운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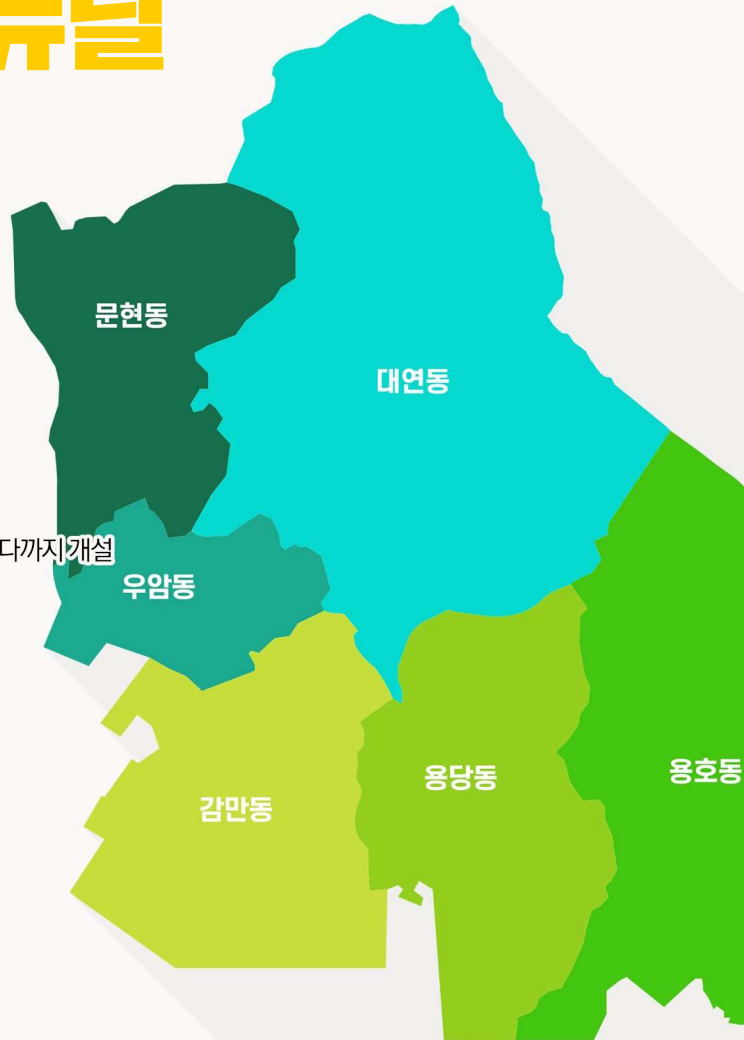
- 노후주택과 빈곤지역 우선 그린 리모델링 모범사업
- 마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과 이익 공유
- 부산소재 대학 스마트에너지캠퍼스 조성
- 동천 살리기

바다를 품은 마을

- 미군 시설 이전 추진
- 우암부두 산업클러스터를 항만친수시설로, 보행도로로 바다까지개설
- IMO(국제해사기구) 국제규제 모범적 준수 감독
- 소형선박 저유황 엔진 개조 지원
- 부산시 50%에 달하는 항만 발 미세먼지 철저 감시

걷기 좋은 마을

- 보행로 중심으로 도로 배치
- 핵심간선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우선 배치
- 문현고가도로 철거하고 문현로터리를 시민광장으로
- 대연역에서 감만동까지 버스 신설



생활 밀착 공약 TIP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학교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특수학교) 설치 확대



아동,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
전면 도입



첫 아이 돌봄
방문 간호사 제도 도입



개인과 사회를 잇는
공감교육 적극 지원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

내일을 여는 길, 당신 곁에

현정길

6



청학초등학교, 신선중학교, 부산남고등학교 졸업
1983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제적(학생운동으로 구속 후 제적)
2004년 민주노총부산본부 사무처장
2004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2008년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0년 '부산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014년 김석준 교육감 후보 상임선거대책본부장
2018년 부산남구청장 선거 출마(정의당)
(현)정의당부산시당 위원장
(현)'부산고용포럼' 이사
(현)부산노동자협동조합 이사장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당 하나 정도는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지만 찾아 출셋길을 달려온 사람과는 다른 사람,
부자들 공간 지키는 경제가 아니라 서민의 지갑을 채워주는 경제,
현정길 같은 국회의원을 가진
자랑스러운 남구 주민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